백범 기념관
Baek Bum Memorial Hall

김춘배 / 건축사사무소 건축이상
by Kim Choon-Bae

프롤로그(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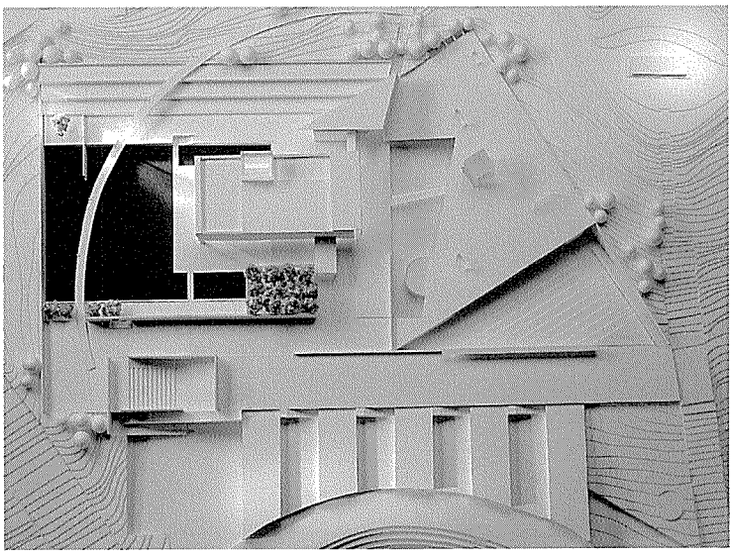
백범기념관 설계경기가 끝난지 6개월이 넘었다. 설계경기를 여러번 해보았지만 이번에는 특히 여러가지 생각들이 머리속을 맴돌았다. 이제 차분하게 계획안을 리뷰하는 심정으로 여러번의 망설임 끝에 이 글을 정리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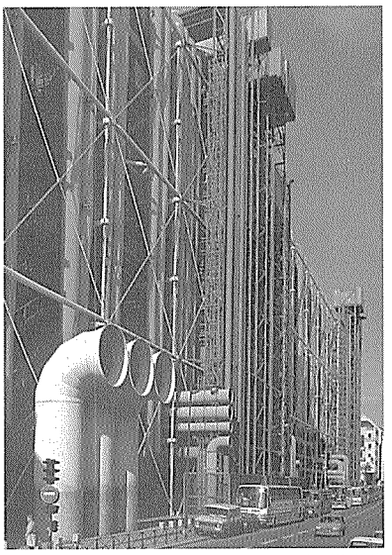
대지 해석

25년만에 효창공원에 갔다. 백범의 묘소가 그곳에 있는지는 이번 설계경기가 아니었으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곳은 나에게 단지 효창구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장소일 뿐이었다. 백범..... 백범의 정신을 누르기 위해 효창구장을 만들었다고 들었다. 건축규모에 비해 땅은 충분히 컸다. 공원의 일부로서 김구 묘역 바로 아래의 대지였다. 주 진입로에서 보면 김구묘역 및 대지위치는 가장 깊숙한 곳에 봄날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있었다.

기념관 건축과 백범 정신

E. H. CAR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라고 하였다. 기념관 건축은 과거 역사속의 인물을 오늘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기억하기 위한 장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건축적 표현은 파리의 퐁피





퐁피두 센터

두 센터나 카네기홀일 수도 있고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디 묘역일 수도 있다. 기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며 머물게 할 것인가, 그 이름 하에 지어진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기억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건축적 접근 방법은 달라질 것이다

프로그램의 해석과 백범 정신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전시 및 자료 연구기능, 대회의장 및 집회강의 기능, 사무 관리부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원법에 따른 건축 면적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하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대지의 경계가 새롭게 건축적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대지를 넓게 쓰고 새로운 접근으로서 대지를 해석하기 위해 500명수용의 대회의장은 음악회 등의 수용이 가능한 다목적 콘서트홀로 계획하는 쪽으로 개념을 설정했다. 백범정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동학혁명에서 시작되어 일제하의 항일무장투쟁 및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후의 조국분단에 맞서 하나된 통일조국을 위한 신념에 찬 일생을 생각할때 '고난'을 맞서 싸운 백범정신이 하나의 특별한 설계개념으로 떠올랐다

계획방향

백범기념관이 효창공원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고 백범기념공간으로 인하여 효창공원을 재탄생시킨다는 생각으로 주제를 백범기념으로 하되 그밖에 여러 다른 요소들이 복합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공원'이 중심이 되도록 만든다.

백범 묘와 관계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김구 묘를 기념관 내부로 이전하는 방법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후에 묘역과 기념관 장소와의 관계설정을 위해 대지경계선을 건축화하고 백범의 고난을 상징화시켜 기울어진 벽을 통해 묘역을 지향케 하여 영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를 설정하였다.

어프로치(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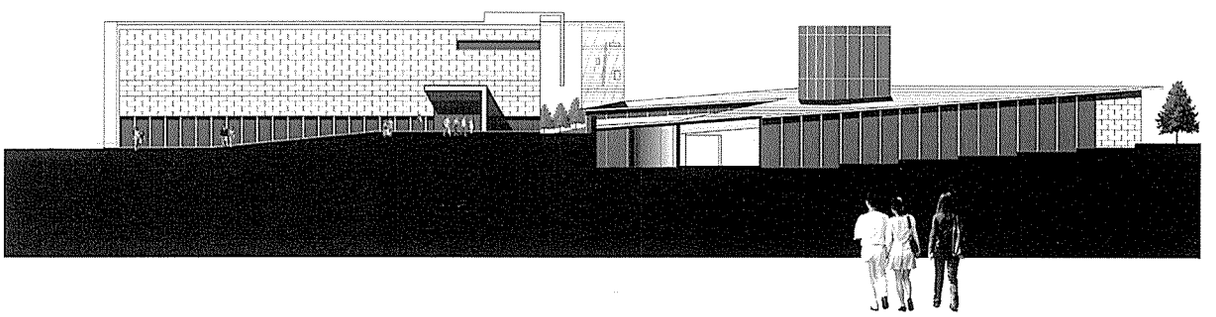
큰 줄거리의 기존의 접근동선을 유지하고 다수의 관람객을 위해 접근동선을 의도적으로 순환동선으로 연출하여 구성하고, 상시 공원의 일부로서 역할을 위해 다양한 쪽에서 접근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묘역 밑의 공원 내 순환보도를 없애 묘역을 성역화 시키고 기념관영역으로 적극적인 동선을 만들어 중심적인 장소로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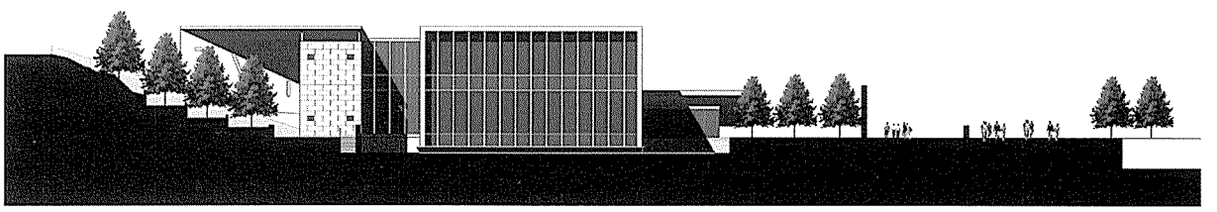
공간구성

대회의장을 기념콘서트홀로서 중심에 위치시키고, 무대부분을 수공간 쪽에 위치시켜 열릴 수 있도록 하고 음악회를 상시 열어 '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진입 전시홀과 콘서트홀, 수공간, 그리고 고난의 벽을 하나의 투명성을 갖는 축으로 구성하였다.

랜드스케입(LANDSCAPE)

구체적인 조경계획으로는 VISTA와 축선을





강조한 배식계획을 하고 관람순서와 동선에 따른 관람객의 심리변화를 고려한 옥외공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하였다. 기념콘서트홀이 있는 지상건축물은 단순한 오브제로 설정하고 전체구성을 랜드스케입(Landscape) 관점에서 큰 스케일로 배치하였다. 현재 관람계단형태로 구분된 후면 상하 지형의 영역구분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건축물과 수공간의 구성을 전통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POCKET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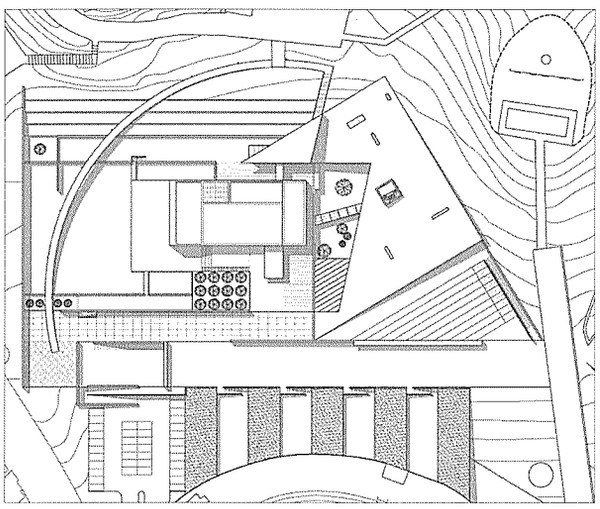
진입부분의 야외전시 POCKET PARK는 백범공원과 효창구장간의 완충과 확장이라는 개념을 구체화시켜 선열들의 추모와 야외전시 및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배치개념에서 전체의 바탕을 이루는 패턴(Pattern)으로서 읽힐 수 있도록 했다.

에필로그(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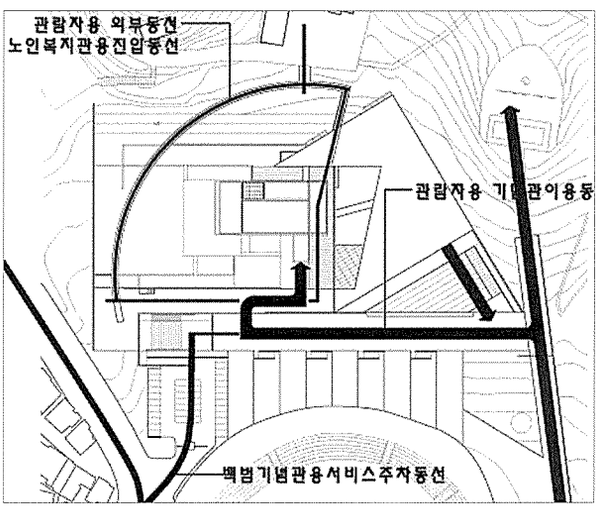
성철스님 사리탑 현상설계, 제암리 3 · 1운동 기념관 현상설계에 참여해 '기념', '기념을 위한 장소'에 대한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해본 기억이 있다.

기념관에는 기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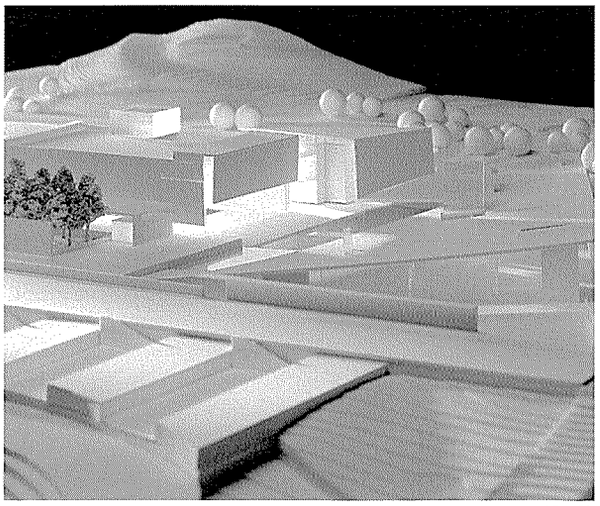
백범의 일생은 민족의 고난의 근대사이다. 그 정신을 전해 줄 수 있는 '즐거운 장소'로서의 기념관은 결국 '조용한 곳'으로 남을 듯하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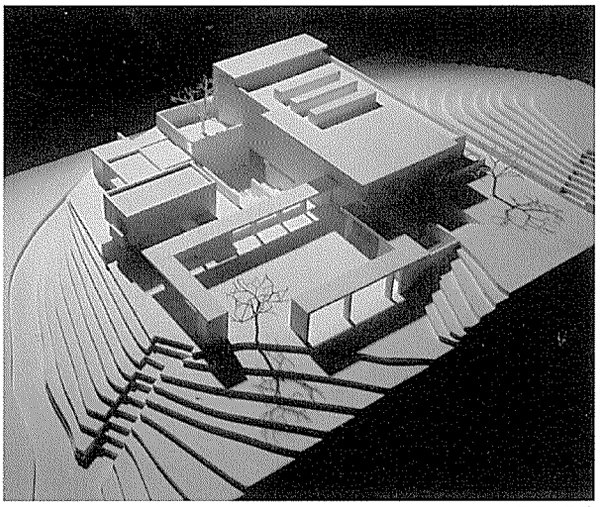
배치도



내외부동선의 연계



제출모형



제암리 제출모형